

# 예술가의 레지던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신란희\*

## A qualitative study on artist-in-residence

Lan Hee Shin\*

**요약** : 레지던시는 예술가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외 교류, 도시재생, 지역사회 소통 등 복합적 효과를 향한 기대 속에서 양적 증가를 이루었다. 이 논문은 레지던시를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가의 레지던시 경험과 관련된 지역밀착적 활동을 연구한다. 이용자에게 직접 수집한 인터뷰자료를 개방코딩, 초점코딩, 영역분석을 하여 예술가가 레지던시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예술가들은 레지던시 경험의 영향을 받아 제도에서 벗어나거나 제도 내에서 머무르는 두 가지 대립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레지던시 정책은 관료주의와 수요공급 격차에 따른 경쟁의 심화, 명망가 중심의 선발이 부른 불공평성, 예술의 자율성 침해 등 여러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쟁 완화를 위해 레지던시를 양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지역문화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선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하며, 관료주의 행정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주체를 분산해야 한다.

**주제어** : 레지던시, 레지던시 프로그램, 창작 공간, 지역문화공간

**ABSTRACT** : Residency not only offers artists studios, but has also increased in quantity, given an expectation of the diverse effects, such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change, urban regeneration, and communication within the community. Hence this study examines artists' community-based activities during their residency experience in order to argue for use of the residency as a local cultural space. This study reviews artists' thoughts about their residency experience using data from users' interviews directly collected and analysed into open coding, focused coding, and area analysis. Analysis of the data showed that the artists had two opposing reactions to the residency experience, one of escaping from the system, the other as staying in the system.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Operational limitations were found, such as intrusion on autonomy, unfairness caused by renowned family-centered selection, bureaucratic policy and management,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due to the gap between supply and demand. Therefore, four implications were deduced: quantitative expansion, improvement of the residency programme and of the selection standard for reforming as the local cultural base, and distributing the central operating body to ease the bureaucratic administration.

**Key Words** : Residency, Artist-in-residence programs, Artistic creative space, Local culture space

## I. 서론

문화예술의 가치가 높아지고 대중의 소득 수준과 더불어 문화예술 향유 욕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레지던시<sup>1)</sup>는 도시재생의 촉매로 인식되면서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레지던시는 과거 창작 영역의 절대화로 만나기 어려웠던 예술가와 직접 예술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타 문화 시설은 전문 인력의 부재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지만 레지던시는 예술가가 있어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오늘날의 레지던시는 예술진흥을 위한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예술계의 등용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 양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입주 예술가는 레지던시 내부의 전문 인력, 기관에서 초청하는 미술계 인사, 자기 홍보 등 실질적인 교류 활동을 하지만 이로 인해 입주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었다. 획일화된 선발 방식으로 예술가들의 중복 지원과 이중 입주를 야기하고 소수 예술가의 독식 체제가 만들어진다. 한편, 이 공간은 지역 주민들과 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예술가의 레지던시 경험 안에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앞서 언급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1. 예술가들은 레지던시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는가
2. 레지던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예술가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 1. 선행연구

국내 레지던시 연구 동향은 '예술 창작 환경 진흥', '도시 계획적 측면'과 '지역 문화 활성화' 등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그중 이 연구의 목적과 유사한 지역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정인규(2009)는 예술 창작 스튜디오를 문화예술 시설의 한 유형으로 제안하였고 지역 커뮤니티를 고려한 공간 계획을 세워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임이랑(2009)은 레지던시 내외의 교류와 네트워크로 예술 창작 진흥을 도모하고 프로그램 기획, 지역사회와의 연계, 분야별 문화예술 연계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신정이(2011)는 광주 대인예술시장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여 유휴 공간이 창작 스튜디오로 활용되면 예술가에게는 창작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고 확인했다. 안정은(2012)은 예술 창작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예술가의 관계 형성, 상호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연구했다. 황산나(2012)는 창작 공간에 커뮤니티아트를 적용하여 기존 창작 공간의 획일화된 공간 구성과 일회성의 프로그램, 예술가 중심의 공간 구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하늬(2013)는 창작 공간의 공공적 특성에 주목하여 창작 공간이 대중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체의 공동선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임지현(2013)은 창작 공간의 디자인적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레지던시는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관계하는 문화 향유 시설로 연구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1) 이 연구는 예술가에게 제공하는 공간 중 시각예술 분야로 대상을 제한하고, 창작 스튜디오, 창작 공간, 창작 클러스터, 창작촌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명칭으로 '레지던시'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운영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예술가들의 레지던시 경험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예술가들의 지역 밀착적인 활동을 조사한다. 이에 따라 레지던시를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증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이용자에게 직접 정보를 수집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도시 재생을 위한 도시과학,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 산업 정책 같은 실용주의적 접근이 아닌 레지던시 이용자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경영 측면에서 연구한다. 이 연구는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작업실의 변화와 예술가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다. 둘째는 레지던시의 개념과 형태, 레지던시 관련 정책 연구이며, 셋째는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넷째는 수집 자료를 종합하고 수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예술가의 레지던시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를 서술하여 시사점을 제안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작업실의 변화

역사적으로 작업실은 늘 예술가의 창작에서 가장 기본적인 환경적 요소였다. 15세기부터 원근법 같은 표현법 관련 지식이 확산되었고 새로운 미술 사조를 탄생시키는 기술을 물려받는 공간, 그 중심에는 예술가의 작업실이 있었다. 서양의 중세 시대 작업실은 수공업자로 분류되던 예술가의 직업이 대물림되는 가족 중심의 가부장적 경영 구조를 지니며 ‘도제-직인-장인’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체제는 스승의 작업실 안에서 새로운 기교를 습득하고 발전해 나갔다(Laneyrie-Dagen, Nadeije, 2007). 17세기에 들어서면서 교육의 영향과 자의식의 성장으로 예술가들의 지적 소양이 높아졌고 일부 예술인들은 지성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얻었다. 이에 따라 예술가들의 작업장인 ‘아틀리에’는 점차 체계적으로 경영되기 시작하며 전문 교육 기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19세기 모더니즘은 예술가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하며 대중 매체에 의해 예술가의 작업실은 모더니즘과 같은 새로운 미술 사조를 생산하는 신비한 공간으로 비취졌다(양은희, 2014). 예술가의 작업실은 분위기와 소품들에 의해 그들의 심리와 철학, 예술관을 볼 수 있는 창구였고 작품의 배경으로도 자주 등장했으며 1960년대 대지미술, 개념미술, 공공미술 등 다양하게 분화된 미술의 흐름과 함께 예술가의 작업실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미술관과 갤러리의 화이트큐브(white cube)에 대한 반성으로 작업실이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제한한다는 의식에서 ‘포스트-스튜디오’ 개념이 등장하였고, 예술가의 작업실은 단순한 창작의 공간이 아니라 미술 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Alex Coles, 2012). 레지던시는 기존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작업실 개념이 아닌 낯선 곳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는 유목과 이동의 형태를 취한다. 레지던시는 작가들이 일시적으로 특정 장소에 체류하게 해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의 장소 특정적 미술과 관계를 맺고 있다(권미원, 2013). 예술가의 작업실은 예술계 속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고 오늘날의 레지던시 또한 작품 활동을 통한 시대 반영, 유목적 예술 활동, 참여 예술, 공공 예술, 생활예술, 협업 예술 등 사회 참여 형태로 예술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의 창작 공간 조성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장소 특정적 미술과 밀접하게 관계하는 활동으로 스콧(Squat)이 있다. 1980년대 프랑스에서 시작된 스콧은 임대나 소유가 아닌 예술가들에 의한 '공간 점거'라는 독특한 방식이었다. 스콧 예술가들은 '예술을 엘리트의 전유물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모토를 실천했고 그들의 예술 활동 성과가 인정되면서 강제 철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정부 소유의 건물에 입주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스콧예술가들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지역의 문화·창작 센터 등의 설립이 추진되었다(김강·김동일, 2015). 한국의 경우 김윤환, 김강을 필두로 방치된 건물을 예술가가 점거하여 재생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오아시스 프로젝트'가 있다.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5년 동안 '공동체' 기반의 네트워크 참여형 모델을 지향하는 예술 활동을 하였고, 김윤환은 서울시의 창작 공간 조성 추진단 단장으로 임명되어 문래예술공장, 금천예술공장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창작 공간의 구성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다(김윤환, 2012).

## 2) 레지던시의 개념

레지던시의 현대적 기원은 1663년 로열 아카데미(l'Académie royale de peinture et de sculpture)가 설립한 '프리 드 롬 장학금 제도'다. 비슷한 시기인 1666년 로마에서는 루이 14세의 예술 보호 정책 중 하나로 '아카데미 드 프랑스(l'Académie de France)'가 설립되었고 지금의 레지던시와 비슷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레지던시로는 19세기 후반 산업화로 인해 비인간적인 획일화에 반하는 예술과 공예 운동(The Arts and Crafts Movement)의 영향으로 화이트 헤드 부부(Jane and Ralph Whitehead)가 1902년

설립한 비르드클리프 콜로니(The Byrdcliffe Colony)가 있다. 현재 WBG(Woodstock Byrdcliffe Guild)로 불리는 이곳은 우드스탁 지역민을 향한 예술적 봉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박신의, 2008).

국가별로 레지던시 개념과 해석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갖는 레지던시 개념은 예술가들에게 일정 기간 작업실과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양건열, 2004). 정책적으로는 '창작 스튜디오'라는 단어를 차용하지만 학문적이나 제도적으로 정착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레지던시, 창작 공간, 예술촌, 예술마을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미국 AAC(The 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는 예술가들의 레지던시를 'Artists retreats', 'Artists Community', 'Artists studio collectives', 'Artists workspace' 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고 있으며 레지던시를 '창작 작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커뮤니티 형태의 여러 가지 지원모델을 예술가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해 단순한 공간 지원 형태의 거주가 아니라 제도적·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예술가 레지던시 공간들의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는 네덜란드의 Res Artist(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sidential Arts Centres)에서는 'Residency Program', 'Artists Residency' 개념을 활용하여 레지던시를 '일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을 초청하는 공간으로, 이와 함께 다른 지역과 소통의 장을 제공해 자신들의 예술 활동을 탐구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네덜란드와 일본은 'Artist-in-Residence'라는 용어를 차용하고 있으며, 타이완의 대표적 국제 레지던시 타이완 예술촌(Taipei

Artist Village)은 다소 동양적 개념인 ‘예술촌(藝術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레지던시, 창작 스튜디오, 창작 공간, 예술마을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 3) 레지던시 운영 목적에 따른 유형

#### (1) 창작 중심형 레지던시

레지던시 대부분의 초기 설립 목적은 이 유형을 바탕으로 한다. 작업 공간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작업하길 희망하는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한다. 현실에서 벗어난 낯선 분위기로 부터 영감을 받아 개인의 창작 활동에 영향을 받고, 생활환경을 제공해 입주 예술가들의 상호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여 예술적 진보를 도모할 수 있다. 2002년과 2004년에 설립된 국립 창동레지던시와 고양레지던시, 2006년 개관한 난지레지던시, 1995년에 민간에 의해 설립된 하계마을과 민간 재단에서 운영하는 영은미술창작 스튜디오, 금호아시아문화재단이 개관한 금호창작 스튜디오, 두산연강재단에서 운영하는 두산레지던시 뉴욕 등이 이에 속한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여부에 따라 국제문화 교류 시설(양건열, 2004)과 교류 협력형 레지던스 프로그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으로 따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환경과 거주 공간을 제공할 때 따로 구분될 필요 없이 창작 중심형 레지던시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2) 프로젝트형 레지던시 프로그램

프로젝트형 창작 공간은 프로그램 기획자를 중심으로 특정 주제에 따라 예술가들과 기획자가 단발성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레지던시를 말한다. 레지던시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에서 이 유형은 레지던시가 예술 정책으로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시작된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와 2007년 쿤스트 독의 ‘통의동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광주시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의 장소인 대인 시장은 1980년대까지 제2의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고속버스터미널과 도청의 이전으로 1990년대 후반에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예술가들이 빈 점포에 입주하기 시작했고 자생적으로 창작 공간이 형성되었다. 2008년 광주비엔날레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김홍주, 2013). 2006년 9월부터 2007년 봄까지 진행되었던 쿤스트 독의 ‘통의동 프로젝트’는 통의동의 도심 재개발 예정지인 보안여관과 인근 가옥 세동을 레지던시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였다. 도심 재개발 과정 중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건물을 예술가들이 레지던시로 활용하게 해 예술가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 (3)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 시설

지역에 기반을 둔 작업 활동을 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밀착된 운영 형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유휴 공간을 개조한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 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스톤앤워터의 ‘석수시장 프로젝트’처럼 재래시장을 레지던시로 개조하여 활용한 사례와 막걸리 양조장을 개조하여 레지던시 관점의 프로그램들을 지역민과 함께 풀어가는 스페이스빔

이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 시설' 유형에 포함된다.

스톤엔위터는 2002년도에 설립되었으며 기존 미술의 제도 안에 결핍된 예술 영역을 보충하기 위해 '생활 속의 예술'을 실천한다. 2002년부터 석수시장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 세미나, 예술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95년에 '지역 미술 연구' 모임에서 출발한 '스페이스 빔'은 2002년 인천 구월동에 개관했으며 중앙 집중적 문화예술 구조 안에서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위한 대안적 미술 활동 공간이다. 옛 양조장 건물을 예술인들이 직접 개조한 스페이스 빔은 공공성, 지역성, 자율성을 모토로 운영하고 지역의 문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면서 레지던시 관점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초기 지역·미술·문화를 다루던 스페이스 빔은 인천·도시·문화로 담론의 폭을 넓히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인천지역의 문화예술을 주도하고 있다.

#### 4) 레지던시 관련 정책

1987년 민주화로 국민의 문화 욕구가 증대하였고 88올림픽으로 인한 세계화는 문화 다양화를 이룩하였다. 이 시기 일부 중견 작가들이 안성에서 집단창작촌 조성 사업을 시도하였지만 이루어지는 못했다. 하지만 향후 정부의 창작 공간 지원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강안나, 2009). 1991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미국과 협정을 맺고 P.S.1 국제스튜디오에 국내 시각예술인들의 연수를 지원하는 '해외 스튜디오 참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뉴욕 '현대미술연구소(The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가 주관하고 한국의 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였으며 이강소 작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현대미술 작가들에게 1년 동안 사용할 작업실, 왕복 항공료,

체류비용의 일부와 귀국 보고 전시회를 지원했다. P.S.1 국제스튜디오는 1971년 뉴욕시 롱아일랜드에 있는 폐교를 개조하여 현대 미술 작가를 위한 스튜디오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공헌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한국에 건립된 창작 스튜디오의 초기 모델로 자리 잡았다(양건열, 2004).

1995년 이후 파주 하계마을, 충북 청원 마동 창작마을, 오궁리 미술촌 등 민간 주도의 창작 공간이 신설되었고 1997년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충남 논산과 인천 강화에 있는 두 곳의 폐교를 활용한 작업실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김연진, 2013). 다음 해 문화관광부는 미술 창작 스튜디오 확충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폐교를 활용한 창작 스튜디오가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양건열, 2004). 마침내 1999년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폐교를 활용한 작업실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폐교를 활용한 창작 스튜디오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예술가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고 시설 노후화로 지속적인 시설 관리가 어려웠다. 그뿐만 아니라 창작 스튜디오 인식 부족, 전문 인력 부재로 매끄럽게 운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작업 공간을 지원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기능을 포함한 설립 의도(박신의, 2013)와는 다르게 예술가의 작업 공간으로만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지역주민과 예술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김연진,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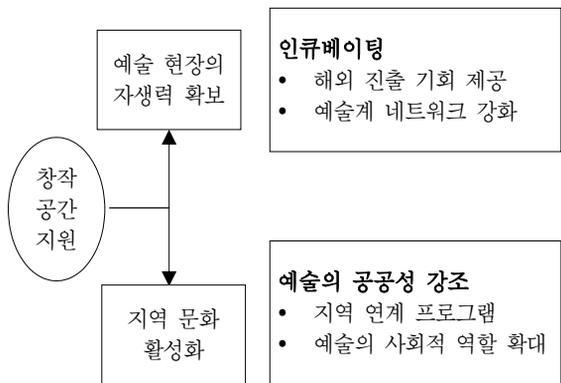
2000년 문화예술 부문의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의 1%를 차지하게 되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이 확대되어 창작 공간이 늘어났다. 2000년대 초반 공사립 미술관과 민간 기업에서도 창작 공간 지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폐교 활용 이외에도 유휴 공간을 증축하거나 창작 공간으로 신설된

곳들이 나타났다. 1997년 광주시립미술관의 중외 공원 내 팔각정을 개조한 스튜디오와 국립현대미술관의 2002년 창동스튜디오, 2004년 고양레지던시 건립이 그 예다.

2004년 4월 참여 정부가 '새예술정책'을 발표하며 창작 스튜디오 지원과 확충 실행 계획이 공표되면서 관 주도형 예술 지원정책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새예술정책'에는 2008년까지 2,000개의 창작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창작 스튜디오를 국제화·전문화해 공간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공간 지원의 실효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문화관광부, 2004). 2005년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출범하면서 중앙에서 주도하던 창작 공간 조성사업도 지방정부로 일부 인계되었다. 또한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ARKO 비전 2010'을 발표하여 정책의 중심을 '예술'에 두었다. 창조자와 수용자를 단순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닌 생비자(prosumer)로 인식하여 대중은 예술을 향유하는 주체이며 예술가들은 대중 속에서 전범(典範)을 실현하는 성취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예술의 생활화와 함께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였으며 공공재로서의 예술, 효율적인 예술의 향유 방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3대 목표, 8개 전략 목표와 24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예술 현장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기초예술 창작 및 매개 공간 활성화 과제가 이루어졌고 이와 함께 국제 예술 교류 프로젝트, 예술의 생활화, 지역 문화예술 진흥,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그 결과 2006년 서울시 난지 창작 스튜디오, 청계 창작 스튜디오, 2007년 청주시의 청주 미술 창

작 스튜디오, 대구의 가창 창작 스튜디오 등이 연이어 개관하였다. 같은 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 지원 사업을 국제 교류 사업에서 분리하여 '프로젝트형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특화하여 운영하였다.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여 예술가의 역량을 높이고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세계적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그림 1〉 레지던시 정책 도식화

출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최근 창작 공간이 도시 계획과 도시 디자인, 건축 분야에서도 도시 재생과 지역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며 문화 부처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처에서도 창작 공간 지원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측면에서 문화를 접목시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창작 공간 사업이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업

이 강조되고 있다(김연진, 2015).

문화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 문화가 예술의 정통성 계승을 의미했다면 1980년대는 문화 민주주의로 문화기반시설 확충 정책, 1990년대는 산업으로서의 문화, 문화산업 육성으로 정책이 변화하였고, 2000년대에는 생활으로서의 문화로 문화도시 담론으로 정책이 발전해 왔다. 보존에서 시작하여 선, 면적인 요소에서 공간 계획으로 영역이 확장되었다(이순자·장은교, 2012).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문화도시에 집중하면서 그 시기가 맞물려 창작 공간의 협력형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았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예술가들의 경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레지던시 경험이 있는 예술가와 레지던시를 직접 운영하는 예술가 그리고 입주를 희망하지만 레지던시 지원에 탈락한 예술가를 모집하였다.

먼저 레지던시 탈락 예술가와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그 후 레지던시의 입주 작가 4인, 운영자 1인과 그룹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룹인터뷰의 경우 개인 면담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룹 단위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 민간이 운영하는 레지던시를 방문하여 직접 운영하는 예술가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참여관찰을 위해 국공립의 레지던시들을 방문하였고 입주 작가 3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면담자 정보

기호	예술가/운영자	성별	레지던시 경험	레지던시의 운영 형태	면담 종류
A	운영자 1	남	Y	민간	집단
B	예술가 1	남	Y	민간, 국공립	집단
C	예술가 2	남	Y	민간, 국공립	집단
D	예술가 3	여	Y	민간, 국공립	집단
E	예술가 4	여	Y	민간, 국공립	집단
F	운영자 5	남	Y	민간	심층
G	예술가 6	남	Y	국공립	심층
H	예술가 7	남	Y	국공립	심층
I	예술가 8	여	Y	국공립	심층
J	예술가 9	여	N	-	심층

### 2. 자료 수집과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예술가들의 레지던시 경험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면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면담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실제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35분 내외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일상적인 이야기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음식을 만들거나 행사에 같이 참가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면담을 시작하였다.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를 토대로 질문하였고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질문을 보완하였다. 사전에 질문지를 전달한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질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충분히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면담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모두 전사한 후 여러 차례 읽었다. 1차 읽기 과정에서는 예술가들이 레지던시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하는지 중점적으로 파악하였고 2차 읽기에서는 레지던시 입주를 희망하는 원인과 그 원인을 초래하는 예술계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3차 읽기에서는 전사에 포함되어 있는 함축적 내용들을 개방코딩하였다. 4차 읽기에서는 코드를 범주화하여 유사

한 코드들을 함께 묶어 상위 코드를 부여한 후 초점코딩하였다. 5차 읽기에서는 전사 자료를 읽고 범주화된 내용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6차 읽기에서는 도출된 내용들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영역분석으로 초점 코딩에서 발견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였다.

### 3. 자료의 분석과 해석

#### 1) 개방코딩

이 연구에서는 인터뷰 전사 내용을 읽으면서 자료를 개념화한 후 범주화했으며 그 개념의 속성과 차원을 발견해나가는 개방코딩 과정을 진행했다. 자료 분석은 자료들을 부호화하고 요약하여 주제를 찾아 덩어리로 묶고 일련의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다(Huberman and Miles, 1994). 자료 분석은 연구의 초기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선형의 순환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예술가가 레지던시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진술을 찾는 과정을 거치고 의미 있는 진술들을 나열하여 각각 동등한 가치를 두고 의미 단위들을 목록화하였다. 개방코딩의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

#### 2) 초점코딩

개방코딩으로 추출된 내용을 토대로 초점 코딩(focused coding)을 실시해 분석적 범주화(analytical category)와 이론적 구성(theoretical constructs)을 진행하고 코딩과 메모 작성의 순환적 과정을 거쳤다. 무엇이 일어났고 현상이 어떻게 경험되었는지를 중점으로 경험의 본질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발달시켰다. 그 결과 12가지 주제가 도출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 초점 코딩을 나타낸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 예술가의 레지던시 경험 개방코딩의 예시

집중적 범주		코드/메모
맥락 중심적 활동의 구조화		
행위로서 예술하기		경력으로 남지 않는 예술 실천
화이트큐브의 대안 공간		
기존 레지던시 비판	사적인 스튜디오 비판	
	개별적 작업 방식 비판	
	장소적 맥락과 관계 맺기	
기존 예술과의 차별성	현존재로서의 예술가	기존 예술과의 차별성
	지역 구성원으로 존재하기	일반 창작을 넘어서는 기능
	함께하기(참여시키기)	주민 관점에 예술 개입
	일상에 개입하기(사회적 존재)	주민 협업으로 공유점 도출
공동생활로 공동문제들을 해결하는 운영 방식	새로운 공간 디자인	지역 리서치, 오픈 스튜디오 대신 결과 보고집 작성
	공동생활	
	충돌과 균열을 경험	
	생각의 교환	
	차이의 발견	
관료주의적 레지던시 정책 비판의식	규정된 방식의 규제 문제	문제를 반복하는 상황
	지원사업 규제 문제	융통성 있는 운영 방침의 필요성
	다양한 사고의 부제	

예술가가 경험하는 레지던시 경험은 크게 표면적 기능과 은폐된 기능의 체험으로 구분된다. 우선 표면적 기능으로, 레지던시에 입주하면 공간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레지던시 안에서 예술가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작품의 생산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본인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창작한다. 레지던시는 예술가가 새로운 예술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공동 작업장으로 존재하는 레지던시는 입주 예술가들에게 공동생활로 공통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동체적 관계를 맺는 장이 된다. 입주 작가 간 상호보완적 토

〈표 3〉 예술가의 레지던시 경험 초점코딩 예시

중심 주제	중심코드	하위 코드 및 기타 속성과 차원들
제도 내 전략	타협하기	행정가와 타협, 운영자와 협업 운영자와 긍정적인 관계 유지하기
	생각의 전환	요구를 작업으로 승화하기 운영 과정에 신경 쓰지 않기 직업적인 작가가 되는 과정으로 인식 레지던시 선택에 스스로 책임지기
제도에서 벗어나기	부정하기	예술의 평가 불가능성 예술가 존재 증명 부정 기존 시스템 부정하기
	공유 도출하기	주민협업으로 공유 도출
대안 제시하기	장소 만들기	레지던시 운영, 새로운 공간 디자인 레지던시 관점으로 프로그램 운영
	차별화하기	지역 기반 창작 활동 지역의 방향성 제시하기
	지역 구성원으로 존재하기	현존재로서의 예술가 일상에 개입하기(사회적 존재) 장소적 맥락과 관계 맺기 주민의 관점에 예술을 개입, 함께하기(참여시키기)
수행적 활동하기 (performative)	과정 중심적 창작 활동	성과(변화, 기록에 중점
	맥락 중심적 창작 활동	상황에 필요한 뭔가 하기 운영=답을 찾아가는 과정 맥락 중심적 활동의 구조화
	행위로서 예술하기	경력에 남지 않는 예술적 실천 변화, 사건, 결과물

론과 경쟁, 갈등 등을 겪으며 예술가들은 독특한 작품 생산에 자극받고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는다. 이렇게 열린 토론의 장에서 입주 작가들은 전문적인 작가가 되는 과정을 경험한다. 많은 예술가가 예술 활동 외의 본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입주 기간만큼은 본인의 작품 활동에만 몰두하는 선택을 하고 물리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한다. 이 과정에서 좀 더 견문을 넓힐 수 있으며, 작품 활동에서도 성장을 경험한다. 즉 작품을 만들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물리적인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예술가는 본업 경험을 본인의 작품에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작품 활동에 있어서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데 방해가 된다. 때문에 입주 작가는 입주 기간 동안은 작품 활동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 외에도 레지던시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인건비를 받는다. 예술 작품이 아닌 예술 활동으로 수입을 얻는 것이다.

“알바해서 벌수 있는 돈을 내 미술을 하면서 이렇게(지역 연계 프로그램 참여)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건 큰 큰 메리트였어요. 솔직히 알바보다 더 많이 받았고요... 그 시간에 그림을 좀 더 그리고...”

표면적 기능의 한 부분으로 공동생활을 하면 입주 작가들과 운영자와의 협업 기법을 습득하여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체험한다. 예컨대 입주 작가가 전시 기획을 직접 담당하여 실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섭외하는 과정 등을 말한다. 한편, 레지던시에 입주한 동안 미술계 관계자와 만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예술가로서 경력을 쌓는 것을 경험한다.

반면, 예술가들은 관료주의적이고 획일화된 레지던시 예술행정과 문화 정책을 비판하고 관련 행

정과 시스템 등의 규정된 방식 때문에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경험한다. 자유로운 창작이 불가능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주기적인 행사 참여나 출석 체크 등 행정의 간섭이 그 예다. 그 외에도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화 정책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왜곡으로 발생하는 레지던시 연계 프로그램의 변질된 현상과 공공미술을 우려한다.

그다음은 중요 코드로 발견된, 레지던시의 은폐된 기능 관련 내용이다. 예술가들은 대부분 예술계를 친밀하지 못하고 두려운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입주 작가들은 '우리', '여기'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예외를 강조하고 외부와 구분하고 외부인을 경계한다.

“여기는 너무 예외적으로 생긴 공간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중략)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예외. 논외로 빠져야 돼요. (중략) 이런 곳이 몇 개 있으면 그렇게 우리를 예외라고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 텐데 사실 없어요. (중략) (방문을 희망하는 기업인)오지 말라 그래.”

예술가가 아닌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조직 불안의 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조직 신뢰와 공정성 부재로 인한 불안이다. 둘째는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에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다. 셋째는 갈등적인 회사 분위기로 인한 불안이다. 넷째는 회사의 비전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오는 불안이다(송관재·이재창, 2008). 예술계 자체를 두려워하고 동료 예술가와의 관계를 우려하는 예술가가 느끼는 불안의 유형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소속감이 강한 일반 조직에 비해 예술가 조직은 소속감 결여에서 오는 불안감을 가진다. 둘째, 일반 조직은 업무 관련 의무감과 책임감이 주어지는

반면, 예술가 조직은 자발적인 활동이 특징이다. 일반 조직은 업무를 분담하기 때문에 실패 시 책임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오로지 본인 스스로 창작하고 책임져야 하는 예술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 조직에 비해 크다. 셋째, 일반 조직의 구성원들은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예술가들은 예술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즉 예술가는 일반 조직과 다르게 공적인 존재로서의 부담감이 주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

예술가들에게 예술계를 자신을 보호해야 하고 긴장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두려움의 영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예술가들은 예술계로부터 느끼는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의 공간을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중심에 레지던시가 있다. 예술가 모두 레지던시 소속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레지던시를 소속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컨대 입주 예술가들이 외부 활동 과정에서 본인을 소개할 때 소속 레지던시를 밝히는 경우가 많고 작가를 소개하는 글 속에 소속 레지던시가 함께 명시된다.

이렇게 레지던시 경험이 있는 예술가들은 창작 공간 확보, 공동생활, 성장 과정, 비판하기, 보호의 거점, 소속감 등의 다양한 레지던시 경험과 관련하여 양면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예술가의 반응은 '제도에서 벗어나기', '제도 내에서의 전략'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레지던시 관련 제도의 양가성에 의해 제도에서 벗어나기와 제도 내에서 머무르는 대립되는 반응이 나타난다. 레지던시는 예술가에게 기존의 예술계와 예술가에게 강요된 관계를 부정하고 혁신을 도입하려는 즉자적 대자를 유도한다. 다른 한편으로 경력으로서 레지던시 경험을 활용하여 예술가들이 보편적 가치가 아닌 개인의 성공을 욕망하는 예술계를 만든다.

## (1) 제도에서 벗어나기

제도 밖 예술가는 기존의 사적 스튜디오를 비판하고, 개별적 작업 방식의 대안으로 레지던시를 활용하며 지역 밀착적인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경직되어 다양한 사고가 부족한 제도 비판에서 시작되었고 그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정하기, 교란시키기, 의문 가지기, 대안 제시하기, 수행적 활동하기, 공유 도출하기 등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관료주의적이고 편협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과 예술가 존재 증명 등 기존의 시스템을 부정한다. 제도적 틀을 교란시켜 혼란을 야기하고 그 혼란 속에 변화된 양상들에 주목한다. 세부적인 문제점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구조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 인식에 초점을 둔다. 그 구조와 문제들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여 제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 결과, 기존의 예술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술가를 지역 구성원으로 존재하도록 한다.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장소적 맥락과 관계를 맺으며 주민의 관점에 예술을 개입시켜 지역의 방향성에 대해 공유를 도출하는 운영 형태를 선택한다. 기존 문화예술 정책의 획일화된 규제를 부정하기 위해 예술의 평가 불가능성을 주장한다. 기존 레지던시의 성과지표는 오픈 스튜디오를 통한 전시 기획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를 부정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수행적 활동(performative)으로 성과보다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에 중점을 두어 과정 중심적인 창작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상황에 필요한 무언가를 맥락 중심으로 지속해 나가며 경력 주의 예술계를 부정하며 경력이 남지 않는 '행위로서 예술하기'를 실천하고 있다.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이게 된 예술가들

은 평가 기준에서 벗어난 예술가들만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여기서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진다. 그 특징의 첫째는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공동체주의적이라는 것이다.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타협과 조화를 모색하고 대가 없는 참여의 형태를 띤다. 둘째는 함께 생활하기 위한 가족공동체적 의례와 자기조직화의 원리가 작동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공동체 생활을 위한 그들만의 제도화를 추구하고 멤버십에 제한을 둔 운영 형태가 특징이다. 예를 들어, 다음 입주 작가는 현재 입주 작가들의 추천과 구성원의 동의 후에 결정하고 매달 레지던시를 운영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지속하려는 모임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이 모임으로 상호 간의 애정과 신뢰가 깊어지고, 공동체로부터 삶의 활력과 정서적·신체적으로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혜택을 얻는다.

## (2) 제도 내 전략

입주 예술가 대부분은 제도 내에서의 전략을 구사한다. 능동적으로 발언하여 의사를 표현하거나 다양한 수사학적 표현과 비획일적인 예술의 역량을 활용하여 작품에 표현해 예술의 자율성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제가 xxx를 그렸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면 안 그럴게 하고 다르게 그리겠죠.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은유, 직설, 역설, 뭐 갖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못 알아차리게 할 수도 있대니까요. (중략)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게 하기 때문에 미술이 재밌어요...”

레지던시의 긍정적인 기능을 인정하고 공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관료주의적 시스템을 용인하며 입주 예술가와 운영자 간 타협으로 유연한 운

영의 가능성을 기대한다. 레지던시 경험으로 예술가는 내적 생각을 전환해 기관의 요구를 본인의 작업으로 승화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작가가 되는 과정으로 인내하기도 한다. 예컨대 의무화된 지역 연계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인의 예술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것에 만족한다. 입주 기간만큼은 전문적인 예술가가 되기 위해 집중하고 운영상의 시스템을 무시하거나 입주 작가 스스로 선택하고 동의한 레지던시임을 되새기며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진다.

예술가들은 예술계에서 보호받기 위해 제도 내 전략의 하나로 예술계에 안주하는 것을 선택한다. 예술가로서 성공을 욕망하며 스스로 제도 안에 속박되거나 예술의 자율성을 잃고 문제점을 목인한다. 대중에 영입된 예술을 주로 하며 예술가의 창작 영역을 절대화한다.

“하다못해 흰 벽으로 칠해도 흰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여기는 이런 미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작가잖아요. (중략) 모두가 거기(공공미술의 요구)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욕먹으면 어찌지... 보면 어떠한 미적 감흥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미술이 주는 압박감을 풀어내지 못한 거죠. (중략) 작가인 걸 포기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식 체계 내에서 부유하는 것들을 아무리 부연 설명을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레지던시 입주 경험은 예술가로서 성공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로 작용하고 레지던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의 유용성 때문에 예술가들의 입주 욕구가 증가한다. 선발 과정은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경력 증빙이 많은 명망가일수록 선발에 유리하게 적용된다. 창작 공간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예술가들은 레지던시의 선발 요구에 부합되는 경력을 쌓고 경쟁을 거쳐 선

발되어 레지던시 작가로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레지던시는 예술 진흥과 예술 현장의 자생력 확보, 즉 인큐베이팅을 목표로한다. 하지만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예술가 경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전문적인 성공을 거둔 예술가들을 입주 대상으로 선호한다.

### (3) 연구 분석

이 논문은 예술가들의 레지던시 경험과 관련된 두 개의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도출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연구 질문 분석 결과

연구 질문 1.
예술가들은 레지던시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 공간 확보</li> <li>• 전문적인 예술가되기</li> <li>• 심리적으로 보호받기</li> </ul>
연구 질문 2.
레지던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예술가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료주의 예술 정책 비판</li> <li>• 획일화된 예술행정 비판</li> <li>• 의무적인 연계 프로그램으로 변질된 공공미술</li> </ul>

예술가들은 레지던시 경험으로 공간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예술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레지던시 입주 경험은 그 자체로 예술가에게 하나의 경력으로 작용하고 입주 기간에 미술계 관계자와 관계를 형성하여 경력을 쌓는다. 다수와 협업을 경험하고 입주 작가들과의 활발한 토론으로 작품에 자극을 받는다. 레지던시의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참여해 수익을 얻고, 예술 작품이 아닌 예술 활동으로 경제 활동을 경험한다. 예술가는 예술계를 두려운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예술가는 레지던시에 소속되어 두려운 예술계로부터 오는 심리적 불안을 해소한다.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 예술가들은 관료주의적인 문화 정책과 획일화된 예술행정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명망가 중심의 선발, 규정된 방식의 규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의 왜곡, 의무적인 프로그램 참여 등을 겪으면서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경험한다. 예술가들은 레지던시제도와 관련하여 예술 활동에 불필요한 시스템들과 획일화된 선발 기준, 의무화된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변질된 공공미술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운영 주체별로 공간의 시설과 운영에서 차이점들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관에서 주도하는 국공립 형태다. 때문에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관료주의적이고 획일화된 행정을 피하기 어렵고 입주 예술가들 또한 필수불가결한 관료주의를 인정한다. 그러나 운영에서 예술의 자율성, 평가불가능성 등의 예술 특수성과 운영을 위한 행정이 충돌한다.

앞서 <그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지던시 관련 정책은 ① 창작 공간 지원, ② 예술 현장의 자생력 확보, ③ 지역 문화 활성화의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의 정책이 예술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창작을 위한 공간 지원은 모든 예술가가 기능을 수행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관료주의적인 운영이 문제로 발견되었고 수요와 공급의 격차로 인한 경쟁의 심화, 명망가 중심의 선발로 인한 불공평성 등의 한계가 있다. 둘째, 운영자들은 국제화라는 정책의 흐름과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네트워크 환경의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 현장 자생력

확보 정책은 인큐베이팅 기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입주 과정에서 예술가는 전문 작가가 되는 경험을 체험한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명목적인 성과 위주의 행정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정책의 반영을 일부 작가는 연계 프로그램을 본인의 작품으로 승화하거나 예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의 경우에는 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IV. 결과 및 고찰

사회적으로 개인의 창조적 역량이 강조되고 문화 감수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문화 시설은 물론, 문화 향유의 욕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레지던시 외에도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 집, 문예회관, 백화점 문화센터 등 각종 사설 문화기관에서도 문화감수성을 증진하는 활동이 이루어 지지만 프로그램의 양과 질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전문 인력의 부재로 이용자의 만족도에 부정적 평가를 받는 다른 기관들보다 과거 창작 영역의 절대화로 일상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예술가와 직접 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레지던시는 매력적일 수 있다. 스카트예술가들이 미학적 성과를 거두며 사람들은 예술가의 유희 공간 점유 효과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레지던시는 유희 공간을 활용한 대표적인 문화 시설이며, 도시 재생의 촉매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레지던시 수가 확대되는 추세다. 레지던시는 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국내외 교류의 장, 지역과 도시

재생, 지역 구성원에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이라는 복합적인 외적 효과에 대한 기대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수가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에 입각하여 이 연구는 예술가들이 레지던시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어떻게 지역 밀착적인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예술가의 레지던시 경험은 표면적 기능과 은폐된 기능으로 구분된다. 첫째, 표면적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하고 싶은 예술 하기: 레지던시 안에서 예술가는 공간적 독립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받는다. ② 전문 예술가 되기: 레지던시 내외로 활발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공동체적 관계를 맺고, 레지던시 소속의 유용성을 활용하여 경력을 쌓는다. 레지던시 안에서 토론과 소통, 갈등을 경험하면서 작품 활동에 자극받고 다수와의 협업을 경험하며 성장한다. ③ 예술작품이 아닌 예술활동으로 경제 활동하기: 레지던시 연계 프로그램 참여로 수익을 얻고, 입주 기간에 창작 활동에 몰입하여 견문을 넓히고 실험적인 예술 활동을 한다. 둘째, 은폐된 기능은 '두려운 예술계에서 보호받기'라는 큰 맥락 속에서 하위 범주를 가지고 있다. 예술가들은 초점 코딩에서 비명망가, 명망가를 막론하고 예술계를 친밀하지 못하고 무서운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긴장된 예술계 속 삶에서 소속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예술가들에게 레지던시는 심리적인 보호의 거점으로 기능했다. 다양한 의미에서 보호를 위해 레지던시에 입주한 예술가는 레지던시 정책과 제도에 양면적으로 반응한다. 레지던시 관련 제도의 양가성에 따라 제도에서 벗어나거나 제도 안에 머무르는 대립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 V. 결론

레지던시 관련 정책은 제도적으로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관료주의 운영 문제가 발견되었고 수요와 공급의 차이로 인한 경쟁의 심화, 명망가 중심의 선발로 인한 불공평성, 예술의 자율성 침해 등의 한계점을 가진다. 예술가들은 명목적인 성과 위주의 행정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예술가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작가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본인의 작품으로 승화하거나 예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반대로 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작가들도 있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된다. ① 오늘날의 레지던시는 정책의 요구와 운영자들의 경쟁 전략으로 인큐베이팅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입주경쟁 또한 심화되었다. 수요 공급의 격차에 따른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레지던시 공간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② 레지던시는 지역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변화된 예술계의 대안적인 흐름과 변화한 예술가 존재를 반영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향한 관심을 선발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지역사회 소통에 적극적인 작가들을 선발할 수 있고 레지던시를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레지던시 내 대안적 예술 활동은 지역민들과 협업하고 공통의 문제를 지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레지던시들은 작업실만 제공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밀착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다. 높은 지역 이해도와 지역과 긴밀하게 관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④ 레지던시는 관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보니 공간의 공공성

이 주는 부담감이 크고 획일화된 행정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공공성이 주는 부담 때문에 지역사회와 관계 맺기를 제도적으로 한정하고 그로 인해 의무적인 지역 연계 프로그램과 자율성이 상충된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도 관료적이고 성과주의적인 운영으로 입주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새로운 운영 형태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강현덕, 2016) 실질적인 대안이 연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예술가의 자율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장려하고 관료주의적인 예술 행정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에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운영 주체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예술가의 레지던시 경험 안에서 지역 밀착적인 활동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레지던시를 지역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증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레지던시 관련 예술가의 일부를 설정하여 자료를 분석했다. 따라서 시각예술 외 다양한 분야의 레지던시 경험이 있는 예술가들의 견해를 아우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많은 의미들이 혼재된 상태로 확산되고 있는 레지던시 개념 정립을 위해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안나, 2009, "시각예술 창작공간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현덕, 2016, "예술가의 레지던시 참여가 창조적 예술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추계대학교 박사논문.  
 권미원, 2013, 「장소 특정적 미술」, 김인규 외 역, 현실문화.  
 김강·김동일, 2015, "1980년대로부터의 질문, 그리고 2000년대 이후 : 한국의 '두렁'과 프랑스의 스퀫 '아르

크로쉬,' 그리고 '오아시스 프로젝트', 「미술이론과 현장」, 19: 187~216, 한국미술이론학회.  
 김동일·양정애, 2013, "상징투쟁자로서의 예술가", 「문화와 사회」, 14: 177~223, 한국문화사회학회.  
 김연진, 2013, 「창작스튜디오 현황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연진, 2015,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문화예술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김윤환, 2012, "김윤환의 작업실 행진곡: 내 직업은 '행정 예술'", 시사인.  
 김홍주, 2013, "문래창작촌·광주 대인예술시장·부산 또따 또가의 창조네트워크 비교 연구", 「서울도시연구」, 14(3).  
 박신의, 2008, 「가을 정기학술대회 창조도시와 문화예술경영」,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박신의, 2013, "창작스튜디오의 역할 변화에 따른 정책 구도와 타당성", 「문화정책논총」, 27(2): 82~8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송관재·이재창, 2008, "조직불안의 유형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1(3): 451~474, 한국심리학회.  
 신정아, 2011, "도시유희공간을 활용한 창작스튜디오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안정은, 2012, "창의적 예술공간으로서의 예술창작스튜디오 활성화 방안",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하늬, 2013, "한국 미술창작공간의 형성과 공공적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건열, 2004,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양은희, 2014, "포스트-포스트-스튜디오 시대의 예술가의 스튜디오와 현대미술의 변화", 「기초조형학연구」, 15(6): 343, 한국기초조형학회.  
 이순자·장은교, 2012,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  
 임이랑, 2009,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국내 정착을 위한 연구: 인천 아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지현, 2013,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예술창작 공간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인규, 2009,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예술창작스튜디오 계획 개념설정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화관광부, 2004, 『새예술정책보고서』, 예술총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단기 전략 계획: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ARKO-비전-20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국내의 국제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연구과제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황산나, 2012, “지역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술창작 공간 연구: 커뮤니티아트 요소를 적용하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lex Coles, 2012, *The Transdisciplinary Studio*, Stern-berg Press, 9~15.

Laneyrie-Dagen, Nadeije, 2007, 『아틀리에의 비밀 : 화가의 작업실로 본 미술의 역사』, 이주영 역, 아트북스.

miles, M. B. and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 book of new methods (2nd ed.)*, Thousand Oska, CA: Sage.

원 고 접 수 일 : 2017년 7월 6일  
 1차심사완료일 : 2017년 8월 17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8년 3월 30일

